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살리는 일

202210126 박수빈

1. 서론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에 비해 5%가 인상된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너무 적은 인상이라며 임금투쟁을 벌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개악저지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¹

반면에 소상공인의 입장은 다르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난 후,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며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 고 우려했다.”²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찬반의 각 입장은 견고하다. 나는 노동계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이다.

2. 본론

2.1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을 따라 가야한다.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 간의 격차는 벌어진다.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을 뜻하고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이며 목적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킴”³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

¹ 강지은, "'1만원 무산' 폭발한 노동계... "최저 임금 투쟁" 선전포고", <뉴스시스> 2022.06.30 오후 8:05 수정, 2022.11.24 오전 11:29 접속,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30_0001926533&cID=10201&pID=10200

² 남궁민관,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분노..."월급 받는 이들이 왜 우리 생사 정하나", <이데일리>, 2022.07.01 오후 12:30:01, 2022.11.27 오후 12:51 접속,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3446632366968&mediaCodeNo=257&OutLnkChk=Y>

³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27 오후 1:13 접속,

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는 목적이 지켜졌다고 하기 어렵다. 물가상승의 경우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7%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⁴ 이렇듯 물가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이다. 만약 이 물가상승을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은 양질의 생활을 하기엔 어려워져 계층 간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 27조 4천억원에서 31조 6천억원으로 늘었다.⁵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원이 늘었다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제일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계층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알려준다. 계속해서 격차가 심해진다면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 서민층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재정부담도 덜게 된다.”⁶

2.2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다. 산업별 추정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를 세분한 추정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20인 이하 기업에서도 자본집약도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임금상승은 자본집약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⁷ 는 결과를 보여준 것처럼 임금의 상승은 노동생산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오히려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산업구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임금수준 상승은 노동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⁴ 조용석,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더욱 추워지는 반도체 시장”, <이데일리>, 2022-11-26 오전 10:46:52 수정, 2022.11.27 오후 1:29 접속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32529656&mediaCodeNo=257&OutLnkChk=Y>

⁵ 이혜진, “[2023 예산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2.08.30, 2022.11.27 오후 2:54 접속, [\[2023 예산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 정책 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https://www.korea.kr/news/01331686632529656)

⁶ 허원순, “[시사이슈 찬반토론]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생글생글 752호>, 수정 2022.05.02 10:01, 2022.11.27 오후 2:43 접속, [시사이슈 찬반토론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 생글생글 \(hankyung.com\)](https://www.hankyung.com/news/01331686632529656)

⁷ 남종석, 이근기, 『임금상승의 노동생산성 효과 및 고용 효과: 20인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 (2018), 649쪽

자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를 가져온다. 이는 고용한정으로 이어져 직업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 기업의 생산방식과 요소 투입량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여러 여건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기업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가 개선된다.”⁸ 이처럼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 반론/재반론

3.1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가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3.2 2021년, 최저임금인상과 실업률의 관계가 비례관계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힌 경제학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했다. 데이비드 카드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미 패스트푸드점 410개를 조사한 결과 뉴저지주 정부가 1992년 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이 4.25달러인 인근 펜실베이니아주나 뉴저지주 모두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가 줄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다.”⁹ 독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되었다. “독일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최초로 도입됐는데 그 효과로 “400만 명의 임금이 오르고 소매업이나 호텔, 식당 등 특정 산업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임금 수준이 10% 정도 올라갔으며 그러면서도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칼리나 박사는 “최저임금 도입 이후 청년을 포함해 실업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 “쿠퍼 씨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출을 한다”며 “미국 내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직율이 줄어들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¹⁰ 이렇듯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인상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

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실,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6.19, 2022.11.7 오후 4:26 접속, [성명·보도 -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nodong.org\)](#)

⁹ 류난영, “‘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 밝혀낸 카드 교수, 노벨상 수상(종합)”, <뉴스시스>, 201.10.11 21:45:14 수정, 2022.11.27 오후 4:20 접속, [‘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 밝혀낸 카드 교수, 노벨상 수상\(종합\) ::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 \(newsis.com\)](#)

¹⁰ 여정민, “美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까닭?”, <프레시안>, 2016.05.18 수정, 2022.11.27 오후 4:38 접속,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6735>

을 준다고 하기엔 어렵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및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임대료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한다."¹¹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이다.

4. 결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 간의 격차를 감소시켜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유지는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노동생산력을 향상시켜,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최저임금을 동결시켜선 안 되고, 물가상승이 오른다면 함께 올라야 한다. 3.2에서 보았듯이 불합리한 요소들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금 등 국가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5. 참고문헌

강지은, "'1만원 무산' 폭발한 노동계... "최저 임금 투쟁" 선전포고", <뉴스시스> 2022.06.30 오후 8:05 수정, 2022.11.24 오전 11:29 접속,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30_0001926533&cID=10201&pID=10200

남궁민관,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분노..." 월급 받는 이들이 왜 우리 생사 정하나",

<이데일리>, 2022.07.01 오후 12:30:01, 2022.11.27 오후 12:51 접속,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3446632366968&mediaCodeNo=257&OutLnkChk=Y>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27 오후 1:13 접속,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조용석,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 더욱 추워지는 반도체 시장", <이데일리>, 2022-11-26 오전 10:46:52 수정, 2022.11.27 오후 1:29 접속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32529656&mediaCodeNo=257&OutLnkChk=Y>

이혜진, "[2023 예산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8.30, 2022.11.27 오후 2:54 접속, [\[2023 예산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https://www.korea.kr/policy-briefing/2023-08-30-01331686632529656)

¹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실,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6.19, 2022.11.7 오후 4:48 접속, [성명·보도 -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nodong.org\)](https://www.nodong.org/news/2021-06-19-01)

허원순, "[시사이슈 찬반토론]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생글생글 752호>, 수정 2022.05.02 10:01, 2022.11.27 오후 2:43 접속, [시사이슈 찬반토론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 생글생글 \(hankyung.com\)](#)

남종석, 이근기, 『임금상승의 노동생산성 효과 및 고용 효과: 20인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 (2018), 649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실,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6.19, 2022.11.7 오후 4:26 접속, [성명.보도 -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nodong.org\)](#)

류난영, "'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 밝혀낸 카드 교수, 노벨상 수상(종합)", <뉴스시스>, 201.10.11 21:45:14 수정, 2022.11.27 오후 4:20 접속, ['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 밝혀낸 카드 교수, 노벨상 수상\(종합\) ::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 \(newsis.com\)](#)

여정민, "美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까닭?", <프레시안>, 2016.05.18 수정, 2022.11.27 오후 4:38 접속,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6735>